

떠나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그들과 만난 난곡주민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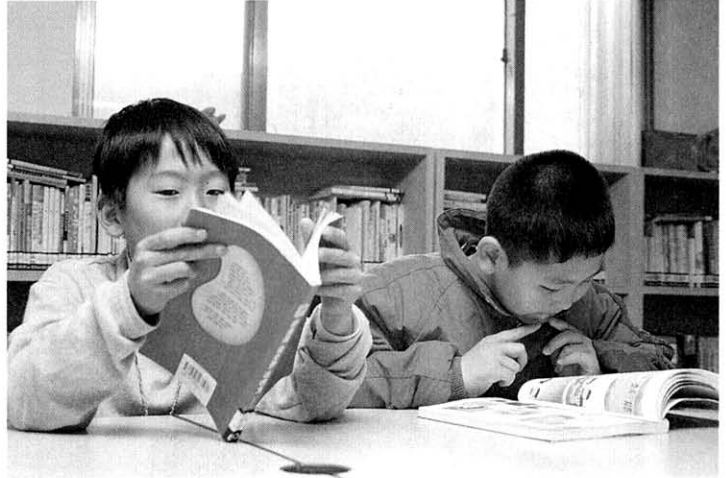
이런 봄 햇살에 여유로운 줄음을 만끽하며 도착한 101번 버스 종점. 타고 내리는 사람 없이 줄지어 기다리는 버스의 시동소리만 요란하다. 종점을 돌아서자 좀처럼 보기 힘든 슬라브 지붕의 기름집이 눈에 들어온다. 철재 간이의자에 앉아 장기를 두는 두 노인의 모습까지 영락없이 시골 읍내 풍경이다. 난곡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서울이면서도 서울이 아닌 모습으로 보내왔다.

조금 걷다보니 이 곳과는 안 어울릴 듯한 세련된 마트가 보이고 산 꼭지에 자리한 윗동네에서는 크레인과 커다란 건설 장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난곡은 그렇게 서울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남은 사람들을 찾아 가파른 언덕길로 향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이 살았던 모습들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

‘통장 000 - 영화칼슘 있는 집’. 달동네의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소한 표지판이 눈에 띈다. 영화칼슘은 가파른 산동네에서 눈이 내려 미끄러울 때 꼭 필요한 물건이란다. 그것을 눈 내려 퐁퐁 얼어붙은 길에 얼추 뿌려 놓아야 그나마 발걸음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니 말이다.

쉼터 같은 도서관

관청에서 부르는 이 곳의 명칭은 ‘신림동’이지만 이 곳 사람들은 그저 ‘난곡동’으로 부른다. 산과 계곡이었던 이 곳에 난이 많이 나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난곡동, 60년대 말 경제개발로 인해 서울 외곽의 끝, 산동네까지 밀려난 이들이 터를 잡고 살아 온 난곡동.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던 난곡이 서서히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냥 심심해서 왔다는 아이들은 도서관이 편해서 좋다고 한다.

난곡주민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들은 재개발이 되기 전 달동네 살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15, 6평쯤으로 보이는 도서관에는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막 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 둘이 그 안에서 열심히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다른 거 재밌는 일 없니? 놀만한 거.”

“그냥 여기 와서 책 보는 게 좋아요.”

“언제부터 이 도서관에 왔니?”

“여기 살 때부터요”

“몇 살 때 여기 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일주일에 몇 번 오니?”

“그냥 생각날 때, 심심할 때요 ……”

책을 읽고 있는 아이한테 갑자기 호구조사 나온 동사무소 직원 같은 질문을 하자 아이가 당황스러워 한다.

“일주일 중에 오늘 같은 월요일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안 와요.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월요일은 왠지 잘 오지 않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월요일이 제일 적게 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많이 오거든요.” 난곡주민도서관 책임을 맡고 있는 신지연 씨



일 년에 서너 번은 초등학교를 위한 취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의 말이다.

직장인들의 술자리도 부담스러운 월요일을 피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만들게 되는데, 아이들도 어른들의 생활리듬과 닮아 가는지. 만화책을 보고 있는 아이들 얼굴을 보니 정말 만화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난곡주민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는 어렵잡아 하루 5~60명 정도다. 주로 초등학교생들과 성인들이다. 공부에 바쁜 중고생은 거의 없다. 초등학교생들이 많은 것은 아마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이든 밖이든 놀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저녁 7시쯤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재개발이 되면서 사람들 발길도 뜸하고 어두워지니까 혹시 몰라서요. 개발이 되기 전에는 늦게까지도 책을 보고 가고 그랬는데……”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니거나 집안에 돌봐 줄 부모님들이 항상 계시는 것도 아니니 이 곳은 말이 도서관이지 아이들이 쉬고 가는 쉼터 같은 장소가 되었다.

책 속에서 찾는 희망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빌려 가세요. 소설 좋아

하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연애소설이요. 왜 그런 거 있죠. 문학소녀 같은 느낌을 갖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에선 힘들잖아요. 예전에 꿈꾸던 일들을 다시 느껴 보는 그런 느낌 같은 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이 녹녹치 않았을 난곡주민들로서는 생계를 꾸리는 것과 아이들 챙기는 일 모두가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팍팍하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100원의 대여료를 내고 책 한 권을 빌려 일주일을 버틴다면 그야말로 살뜰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셈이다.

“이용자 중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분은 오래 전부터 도서관을 이용하셨거든요. 책 제목이며 내용까지 하다못해 작가의 성향까지 죄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기도 해요.” 신지연 씨는 생활의 여유가 더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부럽단다.

“난곡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딱히 없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책 한 권의 가격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4천여 권의 책을 보유한 난곡주민도서관은 월 평균 40여 권의 책을 구입한다. 20여 권은 어린이 책, 나머지는 어른용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문사들이 각 출판사에서 홍보로 들어온 책을 기증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이 곳 난곡주민도서관을 드나들며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신지연 씨는 난곡주민도서관이 길러낸 인물이다. 친구 소개로 오기 시작해 책 읽는 재미와 그 속에서 만난 이들의 활동하는 모습에 감동했었다는 신씨는 지금 도서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일하는 모습이 마냥 즐거운 것을 보니 아마도 하늘이 점지한 인연인 듯 하다.

1989년 서울지역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조사와 더불어 도서관 설립을 위한 조사를 했다. 소위 달동네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

회·문화적으로 소외된 난곡 지역에 직접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건강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난곡주민도서관이다. 96년 화재로 인해 소중한 책들이 손실되기도 했고, 2000년에는 그나마 무료로 공간을 제공해 주셨던 분에게 사정이 생겨서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재정을 뒷받침해주는 곳도 없이 활동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매월 정기적으로 새 책을 구입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지만 회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점차 제자리를 찾았다. 지금 있는 자리도 난곡사랑방의 도움으로 장소를 제공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더부살이'는 면하지 못했다.

난곡에 대한 애정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젊은 날을 같이 보낸 분들이 서른 살이 되고 마흔 살이 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이 곳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지. 아마도 자신들이 젊은 날에 가졌던 뭔가가 이 곳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에 참여했던 활동 회원들도 이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자신의 일이나 가정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찰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난곡지역에 대한 활동회원들의 애정은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동네였던 달동네 난곡동은 이제 더 이상 난이 자랄 수 없는 계곡이 되어가고 있다. 복덕방은 부동산이 되었고 부식 가게는 마트가 되었다. 재개발에 밀려 떠났지만 서울 하늘 아래 그들을 품어 줄 곳은 많지 않다. 어디론가 떠났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될 그들을 지켜보면서 난곡 주민도서관은 언제나 그들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곳을 드나들다 결국 도서관 일을 맡고 있는 신지연 씨는 당시 활동하던 언니, 오빠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

고 있다.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난곡동을 떠날 생각은 없어요. 아직은 그래도 저 버스 종점 있는 아랫동네보단 방세가 훨씬 싸니까 결국 이리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지연 씨가 새로 기증 받은 책을 정리하며 말한다.

‘신림동’이 아닌 그들만의 ‘난곡동’에는 책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들이 있다.

(황석선)

새 사무실서 집들이 가져



사업회는 지난 달 19일 (금) 1층 전시장에서 사업회 이전을 축하하는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리영희 교수, 지은희 여성부장관과 이종수 KBS 이사장, 유가협과 민가협 회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민주인사 100 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2004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사업회 확정

2004년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에서 추진하는 2004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사업회가 신청한 '민주화운동사료DB구축사업'이 확정되었다고 지난달 10일(수)에 한국 전산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사업회는 지난해 2월부터 민주화운동사료DB구축사업 실무진행팀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산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각종 지식정보 DB를

확충하고 DB간 연계성 및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며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사업회는 소장 기록물 가운데 8만여 건을 디지털화하여 희망자들에게 웹서비스하여 향후 민주화운동사료 통합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한국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제고를 통해 향후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사업에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울대와 자료이용 협정 맺어

사업회는 지난 달 24일(수)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기록관(관장 송기호)과 민주화운동사료 교류 협정식을 가졌다. 민주화운동사료 수집, 목록, 소장사료에 대한 복사본 그리고 전자문서사료 등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료의 등록, 분류, 기술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추후 민주화운동에 관한 정보 교류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대학교 기록관측은 사업회의 사료관리시스템에 관해 설명을 듣고 사업회 사료관과 전시장을 관람하기도 했다.



2기 대학 언론인 민주주의 배움터 개최



사업회는 지난해에 이어 제2기 대학 언론인 민주주의 배움터를 개최한다. 이번 배움터는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대학생 기자 1, 2학년 70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매주 한번씩, 6회에 걸쳐서 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잃어버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배움터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직접 겪었거나 이를 계승·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및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3만 원이다.

문의 : 02) 3709-7592, ourstory@kdemo.or.kr

1. 첫번째 나눔마당 : 4월 27일(화), 7시

- 가. 제목 : 왜 다시 민주주의와 역사인가
 나. 강사 : 서해성 (책임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다. 내용 : 1. 역사란 무엇이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화운동 역사 및 그 의의
 3.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2. 두번째 나눔마당 : 5월 4일(화), 7시

- 가. 제목 : 노동운동 돌아보기, 노동운동 다시 보기
 나. 강사 :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다. 내용 : 1.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재
 노동운동의 흐름 및 특성
 2.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성찰

3. 세번째 나눔마당 : 5월 11일(화), 7시

- 가. 제목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나. 강사 : 최장집(고려대 교수)
 다. 내용 : 1.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지형과 그 함의
 2. 한국 정치의 특성과 방향

4. 네번째 나눔마당 : 5월 18일(화), 7시

- 가. 제목 : 5·18 민중항쟁의 진실
 나. 강사 : 문병란(시인)
 다. 내용 : 1. 5·18 민중항쟁 관련 비디오 시청
 2. 5·18 민중항쟁의 진실
 3. 5·18 민중항쟁의 현재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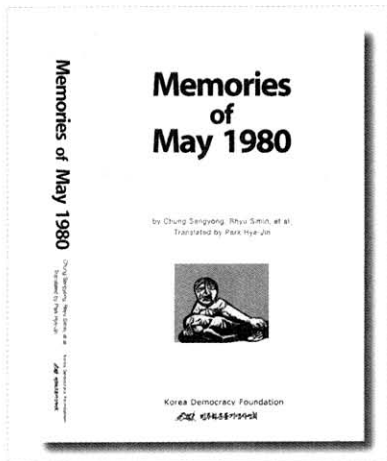
5. 다섯번째 나눔마당 : 5월 25일(화), 7시

- 가. 제목 : 한국 언론의 어제와 오늘
 나. 강사 : 김규향 (전 『아웃사이드』 편집주간)
 다. 내용 : 1. 한국 언론운동의 어제와 오늘
 2. 오늘날 한국 언론의 문제점 및 전망
 3. 민주주의와 언론의 역할

6. 여섯번째 나눔마당 : 6월 1일(수), 7시

- 가. 제목 : 기자가 되려는 젊은 벗들에게
 - 열린 민족공동체를 향하여
 나. 강사 : 리영희(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다. 내용 : 1. 한국 사회의 진단
 2. 민족통합에 대한 고찰
 3.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영문 번역서 『Memories of May 1980』 발간



사업회는 지난해 『전태일 평전』의 영역본 『A Single Spark』를 발간한데 이어 올해는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영문 번역서 『Memories of May 1980 - A Documentary

History of the Kwangju Uprising in Korea』를 출간했다. 『광주민중항쟁 1980 다큐멘터리』(1990, 돌베개)를 기본 텍스트로 했으며 논문과 시 세편(김준태, 김남주, 김용택) 그리고 광주를 보여주는 생생한 판화와 주요 사진들이 함께 실려 있다.

이번 번역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연구하는 해외 학자들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한국학연구소 및 학자, 주요 도서관과 인권 단체 등에 기증될 예정이다

4월의 열사 추모일

- 2일 허원근(1984), 장이기(1985)
- 3일 김윤기(1989)
- 4일 강민호(1990)
- 6일 진철원(1996)
- 7일 권희정(1996)
- 8일 남태현(1989)
- 9일 최완용(1989)
- 10일 곽현정(1988)
- 11일 김상진(1975)
- 12일 이상렬(1992)
- 14일 정영상(1993)
- 16일 황혜인(1996)
- 17일 김낙성(1984)
- 19일 오영권(1996)
- 24일 이덕인(1996)
- 26일 강경대(1991)
- 27일 김영환(1991)
- 28일 이재호, 김세진(1986), 박현민(1992)
- 30일 최윤범(1988)

[2004년 3월 기증자료]

기증자	내 용
광주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운동자료총서 제29권, 제30권, 제31권(총3권)
Pharis Harvey	80년대 초반 김대중선생 관련 자료, 한국노동운동 관련 자료 등 한상자
김학민	민주교육선언, 인권소식, 통일방직·원풍노조, 조선투위, 동아투위 관련 자료 등 한상자